|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Ⅱ 제3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3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18	①	2	35	③	2	35	③	2
2	②	3	19	④	2	36	①	2	36	⑤	3
3	⑤	2	20	⑤	2	37	⑤	3	37	②	2
4	③	2	21	①	3	38	②	2	38	③	2
5	①	2	22	④	2	39	④	3	39	①	2
6	②	2	23	④	2	40	①	2	40	③	2
7	②	2	24	⑤	3	41	⑤	2	41	④	3
8	⑤	3	25	②	2	42	④	2	42	④	2
9	③	2	26	④	2	43	①	2	43	②	2
10	①	2	27	③	2	44	④	2	44	⑤	2
11	④	2	28	⑤	2	45	④	2	45	④	2
12	④	3	29	③	2						
13	②	2	30	⑤	3						
14	①	2	31	②	2						
15	②	2	32	①	2						
16	⑤	2	33	③	2						
17	③	3	34	④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3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에서 소개된 독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대로 된 독서의 한 방법은 문장들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 독서의 목적을 감안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문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 지문에 따르면 문장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때에는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을 감안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제대로 된 독서는 중요한 문장과 덜 중요한 문장을 가리면서 읽는 것이다. ② 제대로 된 독서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것으로 보고 글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다. ④ 제대로 된 독서는 각 문단의 중심 생각을 확인하고 문단과 문단이 어떤 논리적 관계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읽는 것이다. ⑤ 제대로 된 독서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서, 글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2.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에 제시된 두 개념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남의 책에서 요점을 추려 내어 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 '초서'에 대한 정약용의 글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풀이] '요약'의 규칙 중 선택과 삭제를 위해서는 중요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초서'를 할 때에는 남의 책에서 요점을 취사선택하는 사람의 주견이 뚜렷하여 판단 기준이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 하므로, '초서'는 취사선택하는 사람의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글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은 제대로 된 독서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맞다. 하지만 '초서'는 글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 아니라, 남의 저서에서 요점을 추려 내어 책을 만드는 방법이다. ③'요약'의 규칙 중 삭제는 중요하지 않은 문장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맞다. 하지만 '초서'는 남의 저서에서 요점을 추려 내어 책을 만드는 방법이므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들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없다. ④'요약'의 규칙 중 일반화는 여러 문장들을 상위의 개념을 사용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서'는 여러 문장들을 배치하여 목차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책의 규모와 목차를 세운 후에 남의 책에서 필요한 것을 간추려 내는 방법이다. ⑤'요약'의 규칙 중 일반화와 재구성은 글쓴이의 문장을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서'는 남의 저서의 내용이 조리에 맞을 때 자기의 뜻으로 삼는 방법이라기보다 미리 정한 자신의 뜻에 맞는 내용을 남의 책에서 간추려 내는 방법으로, 그 결과 조리에 들어맞는 책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3. [출제의도] 지문을 읽은 학생의 반응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자신이 요약의 규칙을 적용한 결과 이전보다 훨씬 이해가 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요약의 규칙 중 삭제와 선택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하나로 묶을 수 있겠다고 지적함으로써 규칙을 수정할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요약의 규칙을 독서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을 뿐 이를 독서 이외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② 학생은 요약의 규칙을 적용한 독서 방법을 기존의 자신만의 방법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지 않다. 이전에는 글을 무작정 읽었으므로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학생은 요약의 규칙들 중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요약의 규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학생은 요약의 규칙을 적용한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을 뿐, 이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4～9] 인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93쪽

4. [출제의도] 두 지문의 전개 방식에 대한 학습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자유 낙하 이론의 중력 이론으로의 환원, 고전 열역학 이론의 통계 역학 이론으로의 환원 등의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집단 소비 행태를 개인들의 선호로 설명하는 사례 등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는 적절하다. (가)에서는 환원 모형에 대한 네이글과 샤프너의 입장이 비교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과학의 통일'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이 비교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만 학자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제시한다는 ㉯는 부적절하다.

마지막으로 (나)와 달리 (가)에서는 '동질적 환원'과 '이질적 환원'이라는 환원의 두 가지 유형이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으므로 ㉰는 적절하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동질적 환원'은 환원되는 '이차 이론'의 용어들이 환원하는 '일차 이론'의 용어들에 포함되어 있는 환원이다. 즉 '이차 이론'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가 '일차 이론'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일차 이론'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가 '이차 이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네이글에 따르면 '도출 가능성 조건'은 '일차 이론과 연결 법칙으로부터 이차 이론이 도출된다.'라는 조건으로서 연결 법칙의 성립을 전제로 삼는다. 연결 법칙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진술이다. ③ 오펜하임과 퍼트넘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집단 소비 행태와 같은 집단 현상을 개인들의 선호로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은 위계 6 이론의 위계 5 이론으로의 환원에 해당한다. ④ 오펜하임과 퍼트넘에 따르면 대상들은 모두 시공간적인 부분과 전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는 위계를 갖는다. ⑤ 과학 분야 B2가 과학 분야 B1로 환원된다는 것은 B2의 모든 이론들이 B1의 이론들에 의해 환원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심리학이 생리학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심리학에 속한 모든 이론들이 생리학의 이론들에 의해 환원된다는 뜻이다.

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두 입장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네이글의 환원 모형에 따르면 'T1과 연결 법칙으로부터 T2가 도출된다.'라는 '도출 가능성 조건'이 엄격하게 만족되어야 한다. 즉 환원하는 이론 T1과 연결 법칙으로부터 환원되는 이론 T2 자체가 도출되어야 한다. 반면 샤프너의 환원 모형에 따르면 '도출 가능성 조건'은 다소 느슨하게 만족되어도 환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T1과 연결 법칙으로부터 T2 자체가 도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T2의 교정본인 T2#이 도출될 때에도 T2가 T1로 환원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오답풀이] ①㉠과 ㉡은 모두 이질적 환원에 관한 모형이다. 동질적 환원은 연결 법칙을 따질 필요조차 없으므로 동질적 환원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과 ㉡은 둘 모두에서 연결 법칙은 교정되지 않는다. 다만 ㉡에서는 ㉠에서와 달리 환원하는 이론과 연결 법칙으로부터 '교정된 법칙이나 이론'이 도출된다. ④㉡은 ㉠보다 더 포괄적인 모형이다. ㉠과 달리 '이차 이론'이 예측에 성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차 이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⑤㉠과 ㉡은 모두 동질적 환원이 아니라 이질적 환원에 대한 모형이다. 동질적 환원은 환원되는 이론의 용어들이 환원하는 이론의 용어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결 법칙이 필요 없다. 따라서 ㉠과 ㉡은 모두 당연하게도 동질적 환원의 경우 연결 법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7. [출제의도] 지문에서 소개된 특정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오펜하임과 퍼트넘은 위계 2 이상의 모든 과학 분야가 그 아래 위계의 과학 분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통일'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오펜하임과 퍼트넘에 따르면 '과학의 통일'에 대한 믿음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경험적 믿음이며, 또한 실제로 많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신뢰할 만한 믿음이다. ③ 포더에 따르면 비록 모든 개별적 사건들이 결국 물리적 사건인 것이라고 보더라도, '과학의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 ④ 포더에 따르면 심리적 이론 즉 위계 5 이론과, 물리적 이론의 하나인 위계 4 이론 간에 연결 법칙이 존재하지 않아 '과학의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 ⑤ 포더는 심리적 용어와 물리적 용어를 연결하는 연결 법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이론의 물리적 이론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포더에 따르면 연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가령 '기억'이라는 특정 심리적 속성에 대응하면서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물리적 속성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8.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크릭과 왓슨의 DNA 구조 발견 이후, 분자 생물학이 멘델의 이론을 환원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원에서 '유전 정보는 DNA 염기의 서열과 동일하다.'라는 연결 법칙이 이용되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정답풀이] 포더는 특정 심리적 속성에 대응하면서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물리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이론의 물리적 이론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만약 유전 정보에 대응하면서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분자 수준의 물리적 속성이 없다면, '유전 정보'를 분자 수준의 물리적 용어와 연결하는 연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DNA 염기 서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담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유전 정보에 대응하면서 모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분자 수준의 물리적 속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포더는 이럴 경우 서로 다른 연결 법칙이 있다고 보지 않고 연결 법칙이 없다고 볼 것이다.

[오답풀이] ① 네이글에 따르면 환원되는 이론인 멘델의 이론이 환원하는 이론인 분자 생물학과 연결 법칙으로부터 도출된다면 멘델의 이론이 분자 생물학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샤프너에 따르면 멘델의 이론이 분자 생물학과 연결 법칙으로부터 그대로 정확하게 도출되지 않고 멘델의 이론의 교정본이 도출되더라도, 멘델의 이론이 분자 생물학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오펜하임과 퍼트넘에 따르면 분자 생물학은 분자들을 다루는 위계 3의 과학 분야이다. 그들은 분자 생물학자들의 활동에 의해 멘델의 이론을 포함한 상위의 생물학 이론이 위계 3 이론으로 환원된다고 볼 것이다. ④ 오펜하임과 퍼트넘에 따르면 '과학의 통일'은 가능하다. 결국 모든 과학 이론은 궁극적으로 위계 1의 이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유전 정보의 해독, 복제, 변이에 대한 이론도 궁극적으로 위계 1 이론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이는 유전 정보의 해독, 복제, 변이에 대한 설명이 궁극적으로 위계 1 이론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9.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문맥상 동음이의 관계에 있지 않은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예측'과 '그의 엉뚱한 행동은 타인의 예측을 불허한다.'의 '예측'은 모두 문맥상 '미리 헤아려 짐작함.'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지 않다.

[10 ~ 13] 사회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44쪽, 120쪽

10.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시장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스마트폰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상품들이 차별화되어 브랜드나 기능이 다양하지만, 그 종류는 같다.

[오답풀이] ②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상품 1단위를 더 생산할 때마다 가격은 낮아진다. 그런데 낮아진 가격은 생산량의 증가분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모든 수량에 적용되므로,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그보다 큰 폭으로 총수입의 증가분도 줄어든다. 지문의 예시를 참고하면, 만약 상품 생산량이 1단위씩 늘어 가격이 90원, 80원, 70원이 된다면 총수입은 180원, 240원, 280원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한계 수입은 80원, 60원, 40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③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지만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특정 브랜드나 기능의 상품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 ④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기업의 수요가 줄어들기 쉽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광고량이 증가한다.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의 선택 기회가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여러 대상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한계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날 때에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시장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제 원리이다.

[오답풀이] ① 시장 지배력은 경쟁이 없는 독점 시장이나 상품 차별화가 가능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며,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 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의 모든 기업이 동질의 상품을 판매하므로 개별 기업은 시장 지배력도 없고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가격이 조정될 수 없는 것이다. ② 독점적 경쟁 시장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이윤을 높이기 위해 최적 생산량에 못 미치는 생산을 한다. 이는 생산 설비를 초과 보유한 상태에서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평균 비용이 최저점인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는 최적 생산량에 맞는 생산을 하는 것이므로 주어진 생산 설비를 초과 보유하는 상태는 아니다. ③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 곡선이 가로축에 평행하지만, 독점 시장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⑤ 독점 시장은 진입 장벽이 견고해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지 못한 시장이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은 진입과 이탈이 가능하며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이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기업 A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이는 항상 이윤 극대화 상태로 생산함을 뜻한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단기 균형은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지만 기업의 평균 비용과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장기 균형에서는 이윤 극대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평균 비용과 가격이 일치한다.

[정답풀이] 생산량이 Q2일 때는 장기 균형이므로 A의 상품의 가격과 평균 비용은 동일해야 한다. Q2일 때 가격이 3만 원이므로 평균 비용도 3만 원이어야 한다. 총비용은 평균 비용에 생산량을 곱한 값이므로 총비용은 3만 원에 Q2를 곱한 액수와 같아야 한다.

[오답풀이] 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은 한계 수입보다 항상 더 높다. 또 생산량이 Q1일 때는 단기 균형이므로 한계 수입은 한계 비용인 3만 원과 같다. 따라서 가격은 한계 수입인 3만 원보다 높을 것이다. ② 생산량이 Q1일 때는 단기 균형 상태이며 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A와 동일한 이윤 상태에 있으므로, A의 상품의 평균 비용은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량이 Q1일 때 가격은 한계 수입인 3만 원보다 높을 것인데, 가격과 일치하지만 않는다면 평균 비용은 3만 원보다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가격이 3만 7천 원이라면 평균 비용은 3만 5천 원일 수 있다. ③ Q1을 생산하는 단기 균형 이후에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상품이 다양해져 기존 기업인 A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장기 균형 상태의 Q2는 Q1보다 적은 값을 가질 것이다.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평균 비용이 최저점일 때보다 상품의 가격이 높다. 장기 균형인 Q2일 때 가격이 3만 원이므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의 가격은 그보다 낮을 것이다.

13.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표현을 적절하게 바꾸어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 따르면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다. 따라서 이윤이 0이 될 때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때이다.

[오답풀이] ①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 평균 비용이 최저점인 곳에서의 이윤보다 더 높은 이윤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 균형의 이윤이 0이 되는 것을 평균 비용이 최저가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 ③ 장기 균형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평균 비용과 가격이 같아진다. 그러나 기업들의 평균 비용이 서로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 균형 상태라 하더라도 기업들 간에 평균 비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④ 이윤이 0이 된다고 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최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탈할 기업들이 이탈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요가 최소가 될 것이지만 장기 균형은 진입이나 이탈이 모두 이뤄진 후에 도달한다. ⑤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면 이윤 극대화 상태가 되겠지만, 그 상태에서 이윤이 꼭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14 ~ 17] 기술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2차원 영상에는 거리 정보가 담기지 못한다. 그래서 스테레오 비전 기술이 필요하다. 스테레오 비전은 두 개의 2차원 영상을 특수한 조건하에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내는 기술이다.

[오답풀이] ② 초점 거리는 렌즈에서 정해지는 값이다. 카메라와 물체 간의 거리와 무관하다. ③ 매칭은 두 영상 중 한 영상에서의 특정 지점에 대해 다른 영상에서 그에 대응하는 지점을 찾는 과정이다. ④ 거리 지도는 가까울수록 밝은색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어두운 부분은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일 것이다. ⑤ 에피폴라 매칭은 대응점 후보들을 줄여서 매칭하는 방법이다. 그래야 연산의 부하가 줄어든다.

15. [출제의도] 지문의 <그림>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P가 왼쪽 영상의 p로 찍힌 상태이므로 P_1과 P_2 등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p_1'에 대한 대응점이 왼쪽 영상에서의 p로 결정될 수는 없다. p_1'은 P_1과 p_1' 사이의 어떤 점, 혹은 P_1 뒤편의 어떤 점에 의해 오른쪽 영상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p_1'의 대응점은 왼쪽 영상에서 p가 아닌 다른 지점에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3차원 공간에 P가 실제로 있고 P가 왼쪽 영상에 p로 촬영되었다. 따라서 P_1이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P_2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P_1이나 P_2에 무언가 있었다면 그것이 p의 지점에 찍혔을 것이다. ③평면 OPO′에는 p도 있고 에피폴라 라인도 있다. p′은 에피폴라 라인 위의 한 점이다. ④e′은 O, O′을 잇는 직선과 오른쪽 영상 평면이 만나는 점으로 에피폴이다. 에피폴은 에피폴라 라인 위의 한 점이기도 하다. ⑤에피폴라 매칭은 특정 지점에 대한 대응점을 찾을 때 에피폴라 라인 위의 점들만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p의 대응점을 찾으려면 그에 대한 에피폴라 라인인 L′에서 그 위의 점들만 모두 살피면 된다.

16.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의 진술을 적절하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스테레오 비전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두 영상을 찍었을 때, 가까이 있는 물체의 위치가 멀리 있는 물체의 위치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시차가 작다.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은 영상에서의 시차가 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에 대해 거리 지도를 만들되 정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정밀도는 카메라 간 거리가 멀수록 높아진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가까운 곳에서 공통적으로 촬영되는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처럼 멀리 있는 물체를 찍을 경우 카메라 간 거리를 늘려도(㉡) 물체들이 모두 영상에 담길 것이다. 이 상태에서 초점 거리까지 키우면(㉢) 거리 지도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이다.

17.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영상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세 개의 물체가 있는 곳을 향해 두 대의 카메라로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을 얻은 상황이다. 이를 좌표로 찍어 둔 두 영상이 제시되어 있다. 각 물체의 y축 좌표가 동일하므로 물체의 x축 좌표 차이를 통해 시차를 구할 수 있다.

[정답풀이] <보기>의 두 영상에서 사각형 단면을 가진 물체의 시차는 1이다. 그래서 D에서부터 사각형 단면을 가진 물체까지의 거리는 (2×1)/1=2일 것이다. 이렇게 초점 거리가 원래 1이었는데, 다른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초점 거리만 2로 하여 새로 영상을 찍었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자. 지문에 따르면 초점 거리가 바뀔 때 영상이 달라져서 시차도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거리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간의 거리나 물체의 위치가 바뀐 것은 아니므로, D에서부터 사각형 단면을 가진 물체까지의 거리는 그대로일 것이다. 즉 그 거리는 여전히 2일 것이다.

[오답풀이] ①에피폴라 매칭을 하기 위해 시차를 구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에피폴라 매칭은 대응점을 찾기 위한 것이고, 대응점을 찾는 것은 결국 시차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②삼각형 단면을 가진 물체와 사각형 단면을 가진 물체는 시차가 1이고 원형 단면을 가진 물체는 시차가 3이다. 시차가 큰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므로 원형 단면을 가진 물체가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다. ④왼쪽 영상의 A에 대해 에피폴라 매칭을 한다고 할 때, A′은 에피폴라 라인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라인 위에 에피폴이 있다. 에피폴은 A′과 떨어져 있으면서 오른쪽 영상 위에 있을 것이다. 에피폴은 두 카메라를 이은 선이 영상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이다. ⑤원형 단면을 가진 실제 물체의 중심에 놓인 점을 E라 하면 E가 왼쪽 영상에 찍힌 것이 B이고, E가 오른쪽 영상에 찍힌 것이 B′일 것이다. E와 B′를 연결한 선이 에피폴라 라인인 것은 아니다. 대응점 후보들은 오른쪽 영상 위에 있는 직선인 에피폴라 라인 위에 있는 점들이다.

[18～22] 고전소설－수필 통합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퇴별가」(수능완성 229쪽)**

➔ **장유, 「필설」**

18.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주로 대화를 통해 서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통해 각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한편, '다람쥐가 생각한즉', '멧돼지가 분이 나서', '여우가 그 곰을 별렀다가' 등 심리 묘사를 통해서도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풀이] ④'산중 동물 모임'에서 별주부와 토끼의 대화 장면으로의 장면 전환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주부가 모임이 끝난 후에 토끼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있다. ⑤모임의 주관자이자 권력자인 산군조차도 여우에게 '앉으시오'라며 경어를 쓰는 모습 등을 볼 때, (가)의 인물들은 격의 없는 모습보다는 서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 [출제의도]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임금 보좌할 인재 구하러 천하 명산 두루 다니다가' ㉠('산중 동물 모임')을 '천행(=하늘이 준 큰 행운.)으로 만났'다는 별주부의 말에서, 별주부가 ㉠에 참석하기 위해 육지로 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육지에 와서 우연히 ㉠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여우는 '저희가 못나서 남에게 볶이어 걱정'한다고 다른 동물들을 조롱하면서, '주관하는 이에게 비위만 맞추면 일생 평안한 신세로 남의 일에 거저 참여하고 놀 수 있'다며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자랑하였다. ③곰의 말에 의하면 산중 폐단을 없애는 것이 ㉠의 목적이라 볼 수 있는데, 쥐와 다람쥐는 월동할 양식을 모두 빼기고, 멧돼지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겪는 등 부정적 사건만 발생하고 ㉠의 애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곰은 여우에 대해 '그놈의 웃음소리 뼈 저려 못 듣겠'다고 말하고, 여우 또한 곰에 대해 '별렀다가 이간 붙이든지 하여 불 한번 받게 하리라'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참석자들 간에 좋지 않은 감정만이 남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두 인물의 발화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여우 눈에 못 보인 놈 무슨 환난 또 당할지'라는 말로 특정 인물인 여우의 행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B]는 '붓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미루어 짐작할 줄을 모른다'면서 상대인 이생의 제한된 인식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B]는 위선적인 사대부들의 행태로 인한 상황의 부조리함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으나, [A] 또한 여우와 산군으로 인해 일어난 상황의 부조리함을 언급하면서 여우 눈 밖에 난 동물들이 무슨 환난을 당할지 모른다며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다람쥐는 자신이 바칠 양식을 쥐에게 대신 바치도록 권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식을 바치게 되자 '저와 같이 만만한' 쥐도 함께 양식을 바치게 할 것을 산군에게 권유하였다. 따라서 이는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인간이 아니라, 혼자 피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도 함께 피해를 입게 만드는 인간 유형을 풍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가)에서 여우는 '열 냥 값이 푼푼할' 정도로 살이 올랐다고 하여 '멧돼지의 큰자식'을 산군의 먹잇감이 되도록 만들고, 그 덕에 산군이 '옆에 와 앉으'라고 할 정도로 산군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모습에서는 무고한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교활한 인간 유형을 떠올릴 수 있다. ③(나)에서 글쓴이는 '족제비 털'로 감싼 가짜 '황모필'을 소재로 삼아, 겉과 속이 다른 사대부들이 판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⑤(가)의 산군이 여우의 '간신 짓'에 놀아나 좌중에 피해를 주는 상황은, 여우뿐 아니라 산군의 잘못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간사한 사람이 나라를 어지럽'혀도 '바꾸'기 어렵다는 글쓴이의 말은, 속이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가려낼 안목의 부재에 대한 비판도 드러내고 있다. 즉 속이는 것 뿐 아니라 이를 가려내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2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나'는 가짜 '황모필'에만 분노하는 이생을 보고, 가짜 붓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위선적인 사대부들과 그런 사대부들을 가려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즉 사물에 대한 분별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사람과 세상에 대해 통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나'는 가짜 물건보다는 그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인간들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을 뿐, 가짜 물건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경계한 것은 아니다. ⑤'나'는 이생이 나에게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나'가 이생의 요청이 아닌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기록을 남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26]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정철, 「속미인곡」(수능특강 222쪽)**

➔ **김춘택, 「별사미인곡」**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다)의 제1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은 (다)의 제2화자가 아니라 (나)의 제2화자이다. 그리고 (다)에서 제1화자가 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나)에서 제1화자는 제2화자를 '저 각시'라고 부르며 '누굴 보러 가시는고'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고, 이에 제2화자는 제1화자에게 '어와 너여이고 이내 사설 들어 보오'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는다. ③(다)의 제1화자는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까'라는 말로, 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화자는 '팔자를 어이하며 천륜인들 도망할까'라는 말로 불행을 운명의 탓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다)에서 제1화자는, 자신의 처지는 누구와 '견줄 데'도 없다고 한탄하면서 임을 '뫼셔 본 적'도 없고 임이 '사랑할' 만한 모습이나 재주도 갖추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 제1화자에게 제2화자는, 누구보다 '더하거니 덜하거니 분별하여 무엇 하'느냐고 타이르면서 '한시름 잊으'라고 위로를 건네고 있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별사미인곡」에서는 제1화자가 등장하여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제2화자가 등장하여 제1화자를 '이 각시님'이라고 부르며 위로한다.'라는 설명에 따르면, (다)의 '중략' 이후에서 '어와 이 각시님'이라고 부르며 '한시름 잊으'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제2화자이다. 즉 '구름이나 바람이나 된들 무엇 할꼬'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제2화자가 맞다. 그러나, (가)에서 '두 작품에는 각각 두 명씩의 화자가 등장하므로 네 명의 서로 다른 화자가 있는 셈인데, 그중 「별사미인곡」의 제1화자가 「속미인곡」의 제2화자를 '저 각시님'이라 부르며 그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데 따르면, (나)의 제2화자의 말에 반응하는 것은 (다)의 제1화자이다. (다)의 제2화자는 (다)의 제1화자에게만 반응하고 있으므로, '구름이나 바람이 된들 무엇 할꼬'라는 (다)의 제2화자의 말을 (나)의 제2화자가 한 말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다)의 '중략' 부분에서 제1화자가 구름이 되거나 바람이 되어서 임과 함께하겠다는 소망을 드러내는데, 제2화자가 '구름이나 바람이나 된들 무엇 할꼬'라고 한 것은 이 제1화자의 말에 대한 반응이다.)

[오답풀이] ①(나)의 '아양이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라는 말에는 임의 마음이 돌아선 원인에 대한 제2화자의 추측이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의 제1화자는, '아양을 부렸으니 재앙인들 없을쏜가(재앙이 없을 리가 있겠느냐)'라며, (나)의 제2화자가 임에게 버림받은 것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결과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다)의 제1화자는 우선 '(각시님의) 말씀을 들으니 서러운 줄 다 모르겠네'라는 말로 (나)의 제2화자가 털어놓는 사연이 그다지 서럽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이로 보면, (다)의 제1화자가 '해 다 저문 날에 가는 줄 설워 마소'라고 한 말은 (나)의 제2화자인 '저 각시님'의 서러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다)에서 임을 '뫼셔 본 적 바이 없네'라는 말은 (나)의 제2화자가 임으로부터 '너로다 여기'는 사랑을 받으며 '어지러이 굴었던' 일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임과 아무런 인연도 맺지 못한 (다)의 제1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의 설명에 따르면 평생 관직에 나간 적 없는 작가 자신의 처지를 암시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④(나)의 제2화자가 '지은 죄 뫼같이 쌓였'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의 제1화자가 '지은 죄를 모르니 그 더욱 죄'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는 자신은 죄가 없는데도 반대파의 탄핵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다고 생각한 작가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는 '조물이 시기하는가 귀신이 훼방하는가'라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님 섬기길 원'하는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임과 아무런 인연도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A]에는 대구적 표현이 없다.

[오답풀이] ①[A]에는 설의적 표현이 없다. ③[A]에는 '낙월'과 '궂은비'처럼 하강의 이미지와 관련될 수 있는 시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B]에는 상승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A]에는 '낙월'이 있는 창 밖의 높은 하늘이 '님 계신 창 안'과 대조되어 임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으나, [B]에는 이처럼 대조되는 공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A]의 '낙월'은 밤이나 새벽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B]에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임을 향한 마음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다짐의 전제이다. 그 마음은 '하늘이 심으'신 것이며 '성현이 가르'친 것이어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타고난 천성과 후천적인 배움이 모두 부족하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시구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에서 화자가 꿈에서 '반이 넘어 늙'은 임의 얼굴을 보았다고 한 것은, 자신이 임의 곁에 있었다면 임이 이렇게나 늙어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쳐, 임의 곁에서 임을 모셔야 할 자신의 빈자리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의 '길쌈'도 '가무'도 할 줄 모른다는 말은 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자신의 재주 없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⑤㉤의 '분별하여 무엇 하며'라는 말은 (다)의 제2화자가 한 것으로, (다)의 제1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나)의 제2화자의 처지와 견주며 자신이 더 불행하다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을 들은 뒤의 반응이다. 따라서 이는 누가 더 낫고 못하고를 따져 보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수능특강 91쪽)**

➔ **최영철, 「시여 시여」**

27.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너도~저자로 나가 뒤섞여 보아야 하리라', '겨우 찬밥 한 그릇 얻어~눈물로 삼켜 보아야 하리라' 등 당위를 나타내는 진술에서, '시여 네가 오래 사는 길이다/네 어깨 갈수록 넓어지고 그 속에 내가 묻히는 길이다.'와 같은 단정적인 진술로의 전환을 통해, '너'가 시련을 겪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성장이 반드시 '너'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가)에는 당위를 나타내는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⑤(가)에서 의문문은 첫 행에서 한 번만 사용되었다. (나)의 마지막 두 행은 예언적 어조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시련을 통해 '너'가 성장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너'의 실제적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8.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시구를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온유하던 얼굴'과 '갈수록 거칠고 볼품없어'는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나, '바라보는 나는 갈기갈기 찢어지지만'은 '너'가 시련을 겪는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심적 고통을 나타낸 것이지 화자의 후회나 자책과는 무관하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여 네가 오래 사는 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화자는 '너'에게 시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상황에 대해 후회와 자책을 느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에서 질문의 주체를 '누군가'라고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그 질문이 화자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어떤 목소리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②㉡에서 화자의 이동 경로를 '무교동'에서 '서울역 앞'까지 길게 열거한 것은, 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화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었음을 내비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③㉢의 '생각나고 있었다'라는 진행형 서술어는, 화자에게 생겨난 깨달음의 순간을 생생하게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이 깨달음이란 곧 자신이 하루 동안 만난 선한 사람들(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만나 온 선한 사람들)이 곧 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음에 대한 것이다. ④㉣은 '너'가 고난을 겪는 장면을 '각설이 타령'을 하다가 '문전 박대'를 당하는 모습, '찬밥 한 그릇'을 얻는 모습,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너'의 성숙을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29. [출제의도] 시구의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그런'과 ⓑ의 '그렇게'는 모두, 본디는 앞서 언급된 대상을 받아 진술하는 지시어이다. 그런데 (가)의 '그런 사람들'과 (나)의 '그렇게 말해 놓고'는 모두 앞서 언급된 바 없는 것이다. ⓐ와 ⓑ는 이처럼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갑작스러운 지시어의 사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는 거칠고 모진 말을 했음을 환기하므로, 뒤에 이어지는 '마음이 아프구나'와 연결하여 보면 진술 내용과 반대되는 태도를 함축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는 이와 무관하다. ④ⓐ는 생각의 과정을 건너뛰고 결론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화자와 대상 사이의 갈등은 (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⑤ⓐ는 시상을 급격하게 비약시키는 기능을 하고, ⓑ는 시상을 여는 기능을 한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시가 지향해야 할 긍정적 모습은 '엄청난 고생 되어도/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있'으며 '슬기롭게 사'는 것이지 '세상' 자체는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아니다. 또한 (나)에서 '세상의 시궁창'은 시가 성숙하기 위해 경험하고 이해해야 할 삶의 실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를 통해 이겨 내야 할 부정적 현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보기>를 참고하면 (가)의 화자가 시인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인 화자가 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은 '시인이 못 되므로' 모른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화자가 스스로를 시인의 자격에 미달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시인의 자격을 시를 쓰는 능력 이상의 것에서 찾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는 '엄청난 고생 되어도/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있'으며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에게 시란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결부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가)에서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라는 말은 곧 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시인'이며, 그 사람들의 삶이 시라는 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는 시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더 중시하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그 속에 내가 묻히는 길이다'라는 것은, 시인인 자신이 자신의 창작물인 시에 묻힌다는 발상을 담은 말로서, 시인인 자신보다 '시'를 더 큰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을 내포한 말이라 할 수 있다.

[31 ~ 34] 현대소설

➔ **작가 연계 : 이태준, 「해방 전후」 (수능특강 159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순서대로 '문인 보국회'가 열리는 '회장', '변소', '부민관' 밖으로의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의 상황과 관련한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답풀이] ③ 지문에서 회상 장면이라 할 만한 것은 '이 칼이 너희 목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던' '무슨 중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부분 정도인데, 이는 현이 느끼는 긴장감과 공포심을 드러내 줄 뿐이지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④ 인물 간의 대화라 할 만한 것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지문은 시간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나, 현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부민관인 회장의 광경은 어마어마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회장에 온갖 고관대작이며 일본과 만주국의 작가들이 모여들어 '조선 문단 생긴 이후 첫 어마어마한 집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였다는 정보는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이 그에 대해 크게 놀랐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이 지문에서 서술자는 현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시각에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현은 온갖 고관대작이며 작가들이 모여든 대회장의 풍경을 '어마어마'한 것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어찌 될 것인가? 의장 가야마 선생은 곧 내가 나설 순서를 지적할 것이다. 문인 보국회 간부들은 그 어마어마한 고급 관리와 고급 군인들의 앞에서 창씨 안 한 내 이름을 외치면서 찾을 것이다!'라는 현의 생각에서 알 수 있다. ⑤ 현은 자리에 '모자가 남아 있는 것도 의식 못 하고' 회장을 빠져나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바깥의 소리가 조용해지자 '맨머릿바람인 채' 부민관에서 나와 친구에게로 달려갔다.

33.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구린', '배설' 등의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은 자신이 하게 할 연설의 내용을 추잡한 것으로 여기는 현의 인식을 담고 있다. 다른 인물들의 연설이 그러하듯이, 그가 해야 할 연설이란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것인데, 그는 이에 대해 극렬한 거부감을 느끼며 내적 갈등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현이 느낀 '흥미'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파쇼 국가의 문화 행정의 야만성'과 그에 영합하는 문인들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대회의 내용에 대한 현의 호의적인 기대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현은 일본어를 주워섬기는 조선 문인들을 말 못 하는 동물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동물만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을 동물에 빗댄 것이 아니다. ⑤ ㉤ 바로 앞의 '누구이든 이 속을 엿볼 리는 없을 것이나'라는 서술을 고려하면, ㉤은 밖에서의 인기척에 지레 얼어붙은 현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이 남의 시선을 받고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현은, 전에는 일본 내에도 '유종렬'과 같이 군국주의의 야만성을 비판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각 있는 '문화인'들을 찾아볼 수 없이 다들 침묵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 문화인들이 시종일관 '무사태평'하다고 비난한 것은 아니다. 또 히틀러가 철학과 문학을 불 지른 일을 거론하고 있을 뿐, '그네들(일본인들)도 양심 있는 문화인은 상당한 수난일 줄은 안다'고 했으므로, 일본의 문화인들이 조선의 문화를 침탈하고 유린했다고 반감을 가진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국민복'이니 '시국 색조'니 하는 것에서, 당대의 전시 체제 속에서는 의복조차 통제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현은 '약소민족은 강대 민족의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비극의 감수(=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임.)'라고 생각한다. '감수'라는 말의 뜻을 생각할 때, 현은 조선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일은 곧 일본의 식민 통치라는 비극을 달갑게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어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조선인으로서 일본어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짐작할 수 있다. ⑤ 현이 '변소'의 환경을 '유치장이나 감방 속'과 비교하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자신이 비록 저항적 행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일제 치하를 비협력적으로 살았으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드러내어 자신의 비협력적 행위에 저항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8쪽**

35. [출제의도] 지문에 나타난 협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주민 측'은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라고 하여 사전에 확인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② '공사 측'이 '방음벽 설치 이후에도 ~ 추가 협상 자리를 갖도록 하죠.'라고 제안하자 '주민 측'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협상 참여자의 발화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민 측'은 ㉠에서 화물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려면 먼저 방음 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화물 열차 운행 횟수 증가를 주간으로만 한정해 달라는 요구를 '공사 측'이 거절하자, ㉡에서 야간 화물 열차 운행으로 잠을 설쳐 건강을 해치는 주민이 많다고 말하며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37. [출제의도] 협상에서 협상 참여자들 사이의 합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사 측'은 '주민 측'이 요구한 방음 터널 설치에 대해서는 거절하였으나, 소음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주민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방음벽 설치를 수용했다. '주민 측'은 '공사 측'에 열차 운행 횟수 증가를 주간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으나, 방음벽 설치를 수용한 '공사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야간 시간대에 열차 운행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수용했다.

[38 ~ 40]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17쪽**

38. [출제의도] 면담에 드러난 대화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학예사'는 박물관의 외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학생은 ~ 배운 적이 있죠?'라고 물으며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면담의 내용이 글쓰기에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면담에서 '학예사'는 '1층에는 ~ 마련되어 있어요.'라고 하며 한글 박물관의 내부 시설을 층별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나)에서는 '한글 박물관 내부의 상설 전시실에는 ~ 아름다운 정원까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여 한글 박물관의 여러 공간들을 소개하고 있을 뿐 내부 시설을 층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40. [출제의도] 초고를 수정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과 <보기>를 비교해 보면, <보기>에서 '한글 창제 당시의 유물은 물론 ~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라고 서술된 내용이 ㉠에서 '『훈민정음해례본』,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등 ~ 7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다. 전시되는 유물들과 유물의 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초고를 수정하기 위해 ①을 떠올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1～42] 작문－화법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57쪽

41. [출제의도] 두 학생의 글에 나타난 글쓰기 과정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학생 2'가 아니라 '학생 1'이다. '학생 2'가 (나)에서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그런데 힘들게 차린～하는 게 아닌가?') 이는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도 아니고, 뒤에 스스로에게 답하는 방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42. [출제의도] 학생들의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발화에서 A는 '그보다는 내가～마음이 불편하더라고.'라며 '학생 2'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생 2'의 글에 담긴 생각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는 ④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43～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10쪽

43. [출제의도] 글을 쓰기 전에 작성한 메모의 내용이 초고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첫째 문단에 '학생 참여 예산제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관심 역시 증가'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글감인 '학생 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4. [출제의도]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면 '적합한 곳에 예산 사용'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학교의 예산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부족했던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은 아니다. ㉮의 설문 조사 답변 중 '학생 참여 부족'은 학생들이 자치 활동 시 겪는 어려움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 참여가 부족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학생 참여 예산제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어려움은 예산과 관련된 어려움인 '예산 미편성'과 '예산액 부족'일 것이다.

45. [출제의도] 조언을 반영하여 글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에 따르면 마지막 문단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 참여 예산제가 학생과 학교 각각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고, '우리 학교도 학생 참여 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39] 언어

35. [출제의도] 단어에 쓰인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95쪽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에 바뀌지 않는 부분이다. '계시다'는 '계시고, 계시어'와 같이 활용하므로, '계시-'가 어간에 해당한다. '계시니'는 어간 '계시-'에 어말 어미 '-니'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는 분석은 잘못됐다.

[오답풀이] ②'-도록'은 문장을 다음 문장과 연결시켜 주는 연결 어미이다. ④'-기'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또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전성 어미이다.

36. [출제의도] 조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97쪽

'너까지도'의 '까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이를 통해 보조사가 격 조사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해 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틀린 진술이다.

[오답풀이] ①'언니는'의 '는'은 주격 조사를 대신하여, '고기는'의 '는'은 목적격 조사를 대신하여 쓰이고 있다. ②'동생이'의 '이'는 주격 조사이고, '학생회장이'의 '이'는 보격 조사이다. ③'그와'의 '와'는 부사격 조사이고, '개와'의 '와'는 접속 조사이다.

37. [출제의도] 형태가 동일한 대명사의 쓰임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86쪽

ⓐ의 '저'는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의 '저'는 앞서 나온 '아들'을 도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의 '당신'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이다. ⓓ의 '당신'은 앞서 나온 '아버님'을 도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오답풀이] ③ 대명사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로만 쓰인다.

38. [출제의도] 음절의 종성 자리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54쪽

'낯없이[나덥씨]'에서는 파찰음 'ㅊ'이 파열음의 예사소리 'ㄷ'으로 교체되어 연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 해당한다. 종성의 자음군 'ㅄ'의 'ㅅ'은 탈락되지 않고 연음된 후 'ㅆ'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뜻밖[뜯빡]'에서는 파열음의 된소리 'ㄲ'이 예사소리 'ㄱ'으로 교체되는 ㉠과, 마찰음 'ㅅ'이 파열음의 예사소리 'ㄷ'으로 교체되는 ㉡을 확인할 수 있다. ②'밑힘[미팀]'에서는 파열음의 거센소리 'ㅌ'이 파열음의 예사소리 'ㄷ'으로 교체되는 ㉠과, 교체된 'ㄷ'이 뒤 음절의 초성 'ㅎ'과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되는 ㉣을 확인할 수 있다. ④'맞혼인[마토닌]'에서는 파찰음 'ㅈ'이 파열음의 예사소리 'ㄷ'으로 교체되는 ㉡과 교체된 'ㄷ'이 뒤 음절의 초성 'ㅎ'과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되는 ㉣을 확인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예문을 통해 중세 국어 의문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5쪽

제시된 문장 중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 '-오' 계열의 어미가 쓰였다. 두 문장을 통해 '-오' 계열의 어미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의 '어듸(어디)'와 세 번째 문장의 '엇던(어떤)'에서 의문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첫 번째와 네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40～42] 매체 1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18쪽

40. [출제의도] 지문에 나타난 매체별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인터넷 매체로서 기사의 수정이 이뤄지면 그 시각이 나타난다. 기사가 최초로 입력된 시각인 '기사 입력'의 시각과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수정 시각인 '최종 수정' 시각이 다르므로, 독자가 '최종 수정' 시각 이전에 확인한 내용과 '최종 수정' 시각 이후에 확인한 내용은 다를 수 있다.

41. [출제의도] <보기>를 활용하여 매체 자료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스마트 건강 관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기 위해 스마트 건강 관리 시장의 성장률이 연평균 21.1 %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건강 관리 시장의 성장이 요구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특정 수치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42. [출제의도] 특정 매체의 정보를 다른 매체로 적절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의 메모에 따르면 관련 사례를 문자 언어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은 이를 영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3～45] 매체 2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76쪽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라디오 방송으로, 이를 진행하는 직업을 지닌 '진행자'와 수목원의 산림교육치유과 과장인 '송 과장'이 대담을 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가)의 정보 제공자의 범위는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수용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매체는 (가)이다. 그 질문에 답하는 정보 제공자에 의해 새로운 정보가 생산될 수도 있다. ④(가)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 수목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 부처의 인증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다. 한편 (가)에 그러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달하는 정보 자체의 신뢰성과 연결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44. [출제의도] 특정 매체에 드러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기 바라다'를 사용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이 '청소년 생태 수호대'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면 하는 진행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청소년은 라디오 대담의 청취자일 것이다. 따라서 '～기 바라다'를 사용하여 대담 참여자인 '송 과장'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두 개의 매체 자료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